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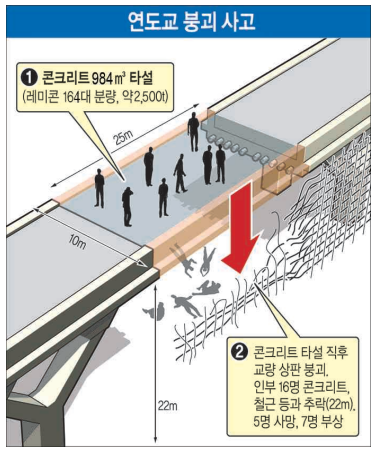
고흥 거금 연도교 붕괴 참사

매몰 인부 5명 끝내 숨진채 발견

300여명 10시간 필사의 구조작업도 무위
경찰·산업안전공단,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지난 5일 오후 발생한 고흥군 소록도 내 거금도 연도교 상판 붕괴 사건으로 매몰된 인부 구조 작업이 6일 새벽 끝났으나, 윤영근(59·고흥군 봉산면)씨 등 인부 5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순간=지난 5일 오후 5시 35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내 '거금~소록도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폭 11.5m의 교량 상판 25m 구간이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중이던 윤영근(58·고흥군 봉산면)씨 등 인부 12명이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 등과 뒤섞이며 22m 아래로 추락, 윤씨 등 5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졌고, 조병수(59·광양시 칠성리) 등 7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존자 서영식(56·고흥군 도양읍)씨는 "다리가 갑자기 내려앉아 본능적으로 철근을 잡고 매달렸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구조 작업=경찰과 119 구조대 등은 사고가 발생하자 ▲유압식 철근 구조물 해체기 ▲크레인 1대 ▲소방차 5대 ▲구급차 3대 등 구조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 녹동용소방대 70여 명과 주민 등 100여 명도 구조를 도왔다.
구조대는 10시간여 동안 필사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콘크리트가 시간이 흐를수록 굳고, 공사에 사용했던 철근들이 뒤엉켜져 있어 구조에 애를 먹었다.
구조대는 이날 오후 7시 17분 윤영근(58·고흥군 도양읍)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8시13분에 소규현(66·서울이 중랑구)씨, 10시34분에는 여동원(40·경남 산청)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대는 6일에도 발굴 작업을 계속, 새벽 0시30분 박정환(52·경남 함양)씨의 시신을 찾아내고, 마지막으

로 사고 발생 10여 시간 만인 3시14분 김만태(56·순천 서면)씨의 시신을 발굴했다.
◇사고 수습=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고 다음날인 6일 현장 사무소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녹동 현대병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또 유족들과 위로금 지급 등 수습 대책을 협의중이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하청업체인 대창건설도 별도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놓았다. 고흥군도 부근수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가동했다.
◇사고 조사=경찰과 노동청, 공사발주처인 의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6일 본격적인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 분석을 의뢰했다.
/녹동=오광록·주각중·김여울기자 kroh@kwangju.co.kr



연도교 붕괴 사고
1 콘크리트 984㎡ 타설 (타설은 164대 분량, 약2,500)
2 콘크리트 타설 직후 교량 상판 붕괴 인부 12명 콘크리트, 철근 등과 추락(22m, 5명 사망, 7명 부상)
다.
경찰은 특히 교량 상판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교량 지지대가 부실했거나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잘못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감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녹동=오광록·주각중·김여울기자 kroh@kwangju.co.kr



119구조대원들이 5일 밤 11시께 고흥 소록도 연도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인을 잃은 장화가 철골 구조물 위에 버려져 있다. /녹동=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016) 김종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쿼데란지!
명품현역·효수공원 조망의 최고 단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영광군수 '굴비 상표권' 개입 의혹

강종만 영광군수가 재미(在美) 굴비 판매 업체에 영광굴비 상표권을 승인하는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강력 영광군수 비서실장은 6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 군수가 지난달 30일 영광군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영광굴비 생산 업체인 Y수산과 수출·입 계약을 한 미국 현지 업체인 S식품 등으로 하여금 영광군이 특허 출원한 '영광법성굴비' 상표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광군 해양수산과장은 지난달 28일 "Y수산이 임의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군수 사진 및 사인 등

이 부작된 굴비를 S식품에 수출했는지, S식품이 수입한 굴비에 역시 임의로 상표 등을 부착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두업체 모두 상표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았으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I관매입체 국순전 부대표는 최근 "S식품이 영광군 심법, 특히 강종만 군수의 사진과 사인이 들어가 있는 상품만이 진짜 영광굴비라는 식의 광고를 해 우리 업체를 통해 굴비를 구입한 중간도매상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소비자들이 반품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사고 원인은? 지지대 부실 시공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 지지대(동바리)에 의한 돌림현상 ▲인근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6일 사고현장을 누비며 부실공사 가능성 또는 시공공법의 문제 등에 대해 실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날 구조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들은 동바리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생기는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번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수직 동바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수평 동바리 설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984㎡(2천500㎡) 가량의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쏟는 과정에서 부실 동바리(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게 중심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들은 동바리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생기는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번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수직 동바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수평 동바리 설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984㎡(2천500㎡) 가량의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쏟는 과정에서 부실 동바리(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게 중심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내 미기록종 '수리' 신안서 사체로 발견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수리과 조류인 '흰배줄무늬수리'가 신안의 한 섬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 관련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섬 지역 생태계 변화 평가조사 도중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섬촌마을 인근 해변에서 국내 미기록 조류인 '흰배줄무늬수리' 사체를 발견했다.
'흰배줄무늬수리'는 발견 당시 모래해변에 파묻혀 있었으며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에 종(種)과 사망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내 공식 관찰 기록이 없는 수리과(Accipitridae)의 'Bonelli's Eagle'로(흰배줄무늬수리)가 확인됐다. 3년생 수리로 추정된 조류사체는 외형상 상처나 골절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독극물에 의한 2차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철새연구센터는 추정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광주·전남 주말·휴일 나들이길 '포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돼 봄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주말인 7일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8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등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복 등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주민등록증 만들어요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6일 오후 광주일고를 방문, 학생들에게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북구청은 4명의 직원들로 발급 서비스팀을 만들어 학교를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는 '학교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南海어민, 여수박람회 찬물 끼었나

어업권 분쟁... BIE 실사때 해상시위 계획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인 여수 현지 실사에 맞춰 경남 남해군 어민들이 육상과 해상에서 집단시위를 벌이려 하고 있어 박람회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6일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서 등에서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업무구역 관할 경계인 동경 128도 선을 전남도 해역 경계기준으로 삼아 남해군 상주면 백서와 세존도 인근 해상을 포함하는 2천816ha를 2008년 2월까지 키조개 육상수면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자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려 하고 11~12일 실사단이 남해를 방문할 경우 유치 반대 결기대회와 여수에서 남해로 오는 선박을 봉쇄하는 등 해상에서 집

女警 성폭행 미수 美軍 2명 붙잡아

서울 강남경찰은 6일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미8군 2사단 소속 미군 병장 B(23)와 일병 F(2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5일 오후 9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F씨가 망을 보는 가운데 사복 차림의 여경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건물 경비원 조모씨는 A씨의 비명을 듣고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상황을 목격한 뒤 112에 신고했고 B씨 등은 성폭행을 포기한 채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 돌며 골프채 170차례 절도

남원 경찰은 6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훔친 박모(42)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K구단 소속 프로야구 선수 이모(37)씨의 BMW 승용차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훔치는 등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전북·경남 등을 돌며 모두 170여 차례에 걸쳐 골프채 100여 세트 등 3억1천여 원의 골프채를 훔쳐온 유수 열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실사 단계에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아이비 유비비 애니 표절 상영불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비(사진)가 일본 비디오 게임속 애니메이션을 베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상영금지 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6일 일본의 유명 게임 제작사 스퀘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재판부는 "신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춤을 추는 장면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유사하다"며 "아이비의 소속사가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 영화와 유사한 이 사건 뮤직비디오를 제작·상영·관람함으로써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 저작물 상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end (April 7-13)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Includes a table for the weekend and a table for the week ahead.